

2015년 새해를 맞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희망과 설렘으로 시작하는 올 한해도 소망하는 일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연구원은 계획했던 많은 일을 잘 마무리했다고 생각합니다. AI라는 복병을 만났지만 전망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 식품업계, 농자재업계, 유통인, 전문가, 정책 담당자 등 정보를 필요로 하는 모든 그룹과 소통하고 한해를 설계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쌀 관세화와 한·중 FTA는 우리 농업은 물론 사회 전체에 매우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에 있어서도 우리는 충분히 제 역할을 했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풍년기근의 상황에서 생산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에 대한 정부의 노력은 얽힌 농업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연구원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대토론회’의 사전 세미나와 본대회에서 연구원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였고, 우리의 역량을 보여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농업의 6차산업화, 밭농업 발전, 농산물 수출, 소비자 문제, 남북 농업 협력,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시 한 번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조금 더 집중해야 할 농정 과제로는 농산물 수급 안정, 밭농업 발전, 가축질병 관리, 개방화에 따른 영향 평가와 수출 증대, 통일 대비, 소나무 재선충 관리 등이 있습니다. 지난해 풍작에 따라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것이 정반대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수급 관리가 제대로 안 될 경우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를 포함하여 우리 사회가 지불해야하는 비용은 매우 큽니다. 효과적인 수급 관리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밭농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계획과 그에 대한 예산, 추진방식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축질병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각계 전문가가 모여 지혜를 모으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장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가축질병은 경제적 피해는 물론 농업에 대한 호감도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우리 농업과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충성도가 저하될 경우 우리 농업이 설 자리는 매우

좁아질 것입니다. FTA 이행 기간이 지속될수록 개방 폭은 커지게 되고, 그에 따른 영향도 가속화됩니다. 농산물 수입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영향 평가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도 연구원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특히 한·중 FTA를 계기로 중국 시장에 대한 수출 가능성과 수출 증대 방안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남북한 교류의 문을 여는 것은 농업입니다. 농업분야의 선도적 역할과 대응 전략 제시에 부족함이 없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현재 확정된 기본(일반)과제에서는 물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과제로 다루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에게 2014년은 매우 조용한 해였습니다. 다행이긴 하지만 아쉽기도 합니다. 사회적 이슈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주 이전을 기회로 우리의 네트워크를 한층 더 확대하고 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갑시다. 연구원 내부적으로 청사이전, 신설조직에 따른 조직개편과 인사, 과제 부담 경감(연구윤리, 품질관리 등 포함), 창의적인 사고와 업무추진, 협업 분위기 확산 등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실시한 ‘연구원 경영개선을 위한 직원 설문조사’에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조사결과 업무량 과다와 품질평가 강화, 분야별 미래 핵심과제 선정 및 대응, 협업, 동호회 등 다양한 교류활동 강화 등의 순으로 과제가 제시되었습니다. 결국 저나 여러분이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주 이전으로 연구원의 전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의 자산은 사람이 전부입니다. 좋은 인재를 품을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올해 신설되는 삶의 질 지원 센터와 재정평가 센터만 해도 센터장 2인을 비롯하여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지난해 퇴직인력도 많았기 때문에 현재 박사급 인력만도 십여 명이 더 필요하지만 채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미국 경제학회에 가서 초빙을 위한 노력을 하겠지만 얼마나 좋은 인력이, 얼마나 많은 인력이 우리 연구를 선택할지 모릅니다. 나주이전이 인력 유치에 얼마나 불리한지는 지난해에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우수 인력 유치 없이는 연구원의 발전은 불가능합니다. 기간제 연구원을 비롯해서 상당수의 인력이 나주 이전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초부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은 2월 초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를 포함하여 보직자들은 직원들의 생산성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연구원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표는 연구의 품질향상에 있다고 생각하고 업무를 처리해 나가기 바랍니다. 연구 없이는 연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훌륭한 연구성과가 나오는 것에서 보람과 긍지를 찾도록 합시다.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은 연구성과 최대화의 관점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창의적인 사고와 일 처리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아직도 미흡한 곳이 많습니다. 이것을 마치 일부 직원들만 관련된 것으로 생각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나주 이전 시대를 맞아 새로운 환경, 부족한 인력(수적으로나 역량으로나) 등의 문제를 직시하고 한층 더 긴장된 마음으로, 창의적 사고로 일을 처리해주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하거나 또는 이렇게 한다는 생각은 아예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의 일/우리 부서의 일이 아니고 연구원의 일입니다. 내 일 네 일을 구분하지 말고 일을 찾아서 서로 알려주고 협업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갑시다.

희망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연구원 경영개선을 위한 직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다행히 연구원의 장래, 직업 만족도, 소통, 평가의 공정성, 연구지원, 직원 의사의 경영 반영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긍정적 평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정성, 투명성, 협업 분위기 향상 등 긍정적 기운이 돌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나주 이전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도전이 될 것입니다. 한층 더 노력하여 연구와 연구성과에서 보람과 긍지를 느끼는 연구원을 만들어 갑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정도 바쁘고 건강도 받쳐주지 않는 등의 이유로 여러분과 소통할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연구원을 위해 더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최세균